

KLSI

ISSUE PAPER

제 165호
2022-04호
(2022.2.23.)

www.klsi.org

일용직 노동실태와 특징 - 일자리 취약성과 노동 사각지대-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관성 | 전북고용포럼 초빙연구원

[목차]

- I. 머리말
- II. 일용직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 III. 일용직 노동시장 정책 과제
- IV. 맺음말

[별첨자료] 설문조사 결과 요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407 (백련빌딩) 701호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sli.org/

〈요 약〉

- 첫째, 지난 10여년 사이 일용직 노동자 감소가 확인되며, 2008년 대비 2020년 39.8% 감소(71만6천명 감소) 했음. 2021년 실태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 이직 횟수는 3.9회였고, 평균 계약기간은 2.9개월이며, 총 경력기간은 4.3개월이었음.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37.6시간(노동 일 4.9일, 주6일 이상 근무 21.8%) 이었고, 월 평균 임금은 210만원이었음. 코로나19 시기 일감 구하지 못한 자가 10명 중 4.5명(44.7%)이나 되었고, 소득 감소자는 3분의 2(66.7%)였으며, 임금 체불 경험(21.5%)도 적지 않았음.
- 둘째, 일터가 ‘매일 변경’되는 비율은 9.5%에 불과했고, ‘6개월~1년 단위 변경’이 59.8%나 되었음.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비율은 23%에 불과하고, 보수 지연 지급은 25.4%, 별도 소개비 요구 10.2% 등의 문제가 확인됨. 사회보험 가입은 국민연금(81.1%)을 제외하면 건강보험(45.9%), 산재보험(23.9%), 고용보험(18%) 가입률은 낮은 편임. 산재 신청 유경험 비율은 11.9%였고, 안전 비품 관리·부족 등 위험성 인식(20.3%) 및 괴롭힘 경험(11.9%)과 우울증 현상(29.3%)도 적지 않았음.
- 셋째, 일용직 노동자는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불안정한 일자리(29.5%), 낮은 소득(경제적 문제 26.3%), 일자리 부족(16.4%)이었음.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8.6%)이나 불투명한 미래(6.5%)도 확인됨. 생활문제로는 여가 활동 어려움(89%)이 확인되며, 비주거시설 형태의 거주(상가, 공장, 고시원, 찜질방 등) 비율이 2.7%나 되었고, 조사대상 중 1인 단독가구 모두 비주거시설 거주였음.
- 넷째,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복지 개선 의견은 △저임금·비정규직의 좋은 일터 지원/인력 매칭, 작업환경, 사회보험 지원(81점),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 지원 정책(80.5점), △경력단절 예방 및 구직 상담(79.6점)이, 노동시장 개선 의견은 △사회보험 지원(81.8점), △거주 인프라 지원(77.1점), △안전한 현장 교육과 경력제도 마련(76.4점)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다섯째, 일용직 노동자 다수는 기간제 노동자임에도 일용노동(disposable work) 형태로 계약되는 고용관계 개선이 필요함. 특히 법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은 노동시장 영역(저임금·고용불안정 및 산업안전, 사회보험, 교육훈련)과 비노동시장 영역(금융, 생활, 주거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일용직 노동실태와 특징

- 일자리 취약성과 노동 사각지대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관성 | 전북고용포럼 초빙연구원

I. 머리말

- 코로나19(COVID-19) 시기 실업과 소득 상실은 고용불안정 집단에게 더 가혹했다는 보고 서나 기사들이 나오고 있음. ILO·OECD(2020.8)는 코로나19 이후 불평등한 노동시장 위치에 놓일 집단(4개) 중 하나로 임시일용직을 꼽았음.¹⁾ 고용 지속성이 낮고 저임금 노동시장 구조에서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disposable work)은 노동시장 개선 과제에서도 관심 밖의 집단 중 하나임.
- 일용직 관련 선행연구는 △노동시장과 환경, △사회보험과 안전망, △제도개선 영역에서 진행되바 있음.²⁾ 일용직 노동자 비중이 높은 건설 분야 관련 연구가 다수이며, 실태조사는 최근 일부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 일부 진행된 정도임. 각 연구에서는 건설, 가사·간병 분야의 일용 노동자 대상 지역별 실태조사를 통해 각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그간 일용직 노동시장 정책은 대부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 적용 논의가 다수였음. 물론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고 고용안정성에 취약한 건설일용 노동자 문제(건설고용보험카드제, 통상근로계수)와 일용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가입 실태, 가입 방안, 기금 등) 관련 연구들이 진행된 상황임.
- 하지만 일용직은 건설·제조업 이외에도 음식숙박, 가사서비스, 청소경비, 도소매 및 물류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고용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지난 10여년 일용직 노동자의 규모가 다소 감소 추세이나 전체 노동시장에서 100만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향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1) ILO·OECD(2020.8),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jobs and incomes in G20 economies, ILO·OECD.

2) 일용직 주요 연구조사는 △노동환경 실태조사로 최윤선 외(2012); 신영철(2017); 이진수 외(2019), △사회보험 연구로 송혜련·박근혜(2011); 고성석·임종훈(2013); 정희선(2013); 김재진·홍범교(2015); 김용하(2016); 임운택·이서형(2018), △고용동향으로 김복순(2010); 김복순·이규용(2010), △제도개선방안 연구로 송영민·강준수(2019); 박근후 외(2014)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은 일용직 노동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검토하고, 일용직 노동자 실태(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한 노동환경 전반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음. 한편 수도권 A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의 코로나19 시기 노동 상황과 개선과제를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음.³⁾

II. 일용직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1. 일용직 노동시장 현황

- 일용직 노동자 수는 지난 10여년 사이 감소가 확인되며 전국 일용직 노동자 규모는 2008년 대비 2020년 39.8% 감소(71만 6천명 감소)했고, 조사대상 A지역의 일용직 노동자 규모는 2008년 대비 2020년 42.4% 감소(1만 4천명)했음(표 1). 일용직 노동자의 규모의 자체 감소도 있겠으나, 타 부문으로 노동 이동 및 비일용직 및 비임금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 등) 형태의 고용 증가 현상도 한 요인임.

[표 1] 노동시장 내 일용직 노동자 규모 추이(2008년~2020년)

	전국 노동시장 규모				A지역 노동시장 규모			
	전체 취업자 (천명)	일용직 (천명)	전체 취업자 대비 일용직 비중(%)	연도별 일용직 증감률(%)	전체 취업자 (천명)	일용직 (천명)	전체 취업자 대비 일용직 비중(%)	연도별 일용직 증감률(%)
2008	23,163	1,798	7.8		376	33	8.8	
2009	23,029	1,570	6.8	-12.7	390	27	6.9	-18.2
2010	23,144	1,441	6.2	-8.2	370	20	5.4	-25.9
2011	23,456	1,468	6.3	1.9	382	26	6.8	30.0
2012	23,641	1,327	5.6	-9.6	411	22	5.4	-15.4
2013	24,278	1,351	5.6	1.8	454	33	7.3	50.0
2014	24,701	1,430	5.8	5.8	460	28	6.1	-15.2
2015	25,056	1,329	5.3	-7.1	466	24	5.2	-14.3
2016	25,266	1,349	5.3	1.5	502	28	5.6	16.7
2017	25,709	1,345	5.2	-0.3	518	21	4.1	-25.0
2018	25,846	1,285	5.0	-4.5	495	23	4.6	9.5
2019	26,229	1,255	4.8	-2.3	482	21	4.4	-8.7
2020	25,555	1,082	4.2	-13.8	462	19	4.1	-9.5
변화	716천명 감소 (39.8% 감소)				14천명 감소 (42.4% 감소)			

*자료: 통계청, 2008~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 3) 조사대상 A지역의 일용직 노동자 규모는 2020년 상반기 전국 163개 시군구 기초지역 가운데 전체 취업자 대비 일용직 노동자 비율은 5.1%로 전국에서 19번째로 높은 상황임. 일용직 설문조사는 2021년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679명(건설 140명, 음식여가 103명, 판매기타 91명, 제조 79명, 유통 72명, 물류유통 71명, 청소경비 64명, 가사돌봄 59명)이 조사 표본임. 조사대상 표본은 남성이 51.7%(여성 48.3%)였고, 50대 이상이 60.5%였고, 30대 이하 청년은 20.4%(40대 18.1%)였으며, 사업장 규모는 5~10인 미만 33.8%, 5인 미만 28.9%, 30인 22.5% 순이었음.

- 일용직 노동시장 특징은 다수가 남성·고령·저학력 노동자라는 점이며, 일용직 노동자 다수가 건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음. 일용직 분야의 근속기간이 그리 짧지 않았고(평균 6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30.6시간)이 적지 않았음. 물론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에 비해 저임금 임금(월 154만원)이었음. 특히 35시간미만 단시간 일용직 노동자가 10명 중 4명 남짓이었고,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단시간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표 2], [표 3]).

[표 2] 전체 취업자 및 일용직 임금 추이(2008년~2020년)

년도	월 평균임금(만원)				시간당 임금(원)			
	전국		A지역 사업장		전국		A지역 사업장	
	전체 취업자	일용직	전체 취업자	일용직	전체 취업자	일용직	전체 취업자	일용직
2008	129	100	166	114	10,038	5,978	10,968	6,664
2009	133	99	168	103	10,112	6,024	11,225	7,183
2010	141	104	177	118	10,608	6,441	11,887	8,034
2011	143	95	183	93	10,876	6,374	12,430	6,403
2012	156	105	191	112	11,643	6,996	13,311	8,125
2013	208	108	234	106	11,961	7,143	13,376	7,433
2014	229	118	251	119	12,288	7,501	13,485	7,280
2015	238	124	258	121	12,908	8,021	14,064	8,332
2016	246	128	279	135	13,958	8,461	16,450	9,236
2017	252	140	284	154	13,836	9,075	15,669	9,781
2018	267	152	298	165	14,904	10,087	16,768	10,824
2019	275	154	313	168	15,707	11,095	17,911	11,417
2020주)	282	154	323	149	18,191	12,161	21,064	12,448

* 주 :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소정근로시간 월급 1,795,310원 / 2020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757,194원
*자료: 통계청, 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표 3] 전체 취업자 및 일용직 노동시간 추이(2008년~2020년)

	전국		A지역 (사업장 기준)	
	전체 취업자	일용직	전체 취업자	일용직
2008	47.5	40.6	46.6	40.6
2009	47.2	40.0	45.8	37.8
2010	47.0	39.3	45.8	39.6
2011	45.0	36.4	43.6	34.2
2012	44.6	36.4	43.2	34.2
2013	44.6	36.4	44.4	34.0
2014	44.6	37.4	44.8	37.4
2015	43.9	36.7	43.6	34.9
2016	42.8	36.3	41.5	36.6
2017	43.2	36.6	42.9	37.5
2018	42.6	35.9	42.2	35.9
2019	41.3	33.1	41.1	35.3
2020	38.3	30.6	37.5	28.0

*자료: 통계청, 2008-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2. 일용직 노동실태 - A지역 조사결과

- 첫째, 일용직 노동자의 이직 횟수는 3.9회(여성 3.5회)였고, 평균 계약기간은 2.9개월(여성 2.3개월)이고, 총 경력기간은 4.3개월(여성 4.2년)이었음. 일용직 노동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37.6시간(1주일 근무 4.9일, 주6일 이상 근무 21.8%, 여성 36시간, 1주일 근무 4.7일)이었고, 월 평균 임금은 210만원(여성 168만원)이었음.
- 둘째, 일용직 노동자의 일터가 '매일 변경'되는 비율은 9.5%(여성 10.1%)였고, '1개월 이내 변경'이 30.7%였으나, '6개월~1년 변경'도 59.8%(여성 62.3%)나 되었음. 그럼에도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비율은 23%(여성 18.3%)에 불과하고, 보수 지연 지급은 25.4%(여성 19.2%), 별도 소개비 요구가 10.2%(여성 8.5%)로 다양한 노동 문제들이 확인됨.
- 셋째, 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건강보험(45.9%, 여성 47.9%), 산재보험(23.9%, 여성 17.7%), 고용보험(18%, 여성 15.6%), 국민연금(18.9%, 여성 13.4%)가입률이 낮은 편임. 전반적으로 일용직 노동시장의 일자리 취약성(단기 계약과 고용불안)과 젠더 차이(여성 다수)가 확인됨.

[표 4] 일용직 노동실태 주요 특징 - 노동조건과 상황(단위: %, 개월, 회, 만원)

		전체 평균	여성	1인가구	건설	제조	음식 여가	가사 돌봄	청소 경비	유통	물류 운송	판매 기타	
일자리	첫 일자리 정규직 (*기간제)	37.8 (20.0)	37.8 (22.9)	12.5 (25.0)	35.7 (15.0)	41.8 (25.3)	29.1 (28.2)	61.0 (8.5)	28.1 (21.9)	38.9 (18.1)	33.8 (16.9)	41.8 (24.2)	
	이직 횟수	3.9	3.5	5.9	4.8	3.5	2.9	3.8	4.2	3.6	4.7	3.3	
	근무 지 변동	매일 변동	9.5	10.1	20.0	6.4	0.0	9.7	15.3	18.8	15.3	13.8	4.4
		1주-1개월 이내 1회	30.7	32.8	26.6	45.0	25.3	20.4	57.6	30.4	5.6	30.7	35.2
		6개월-1년 이내 1회	59.8	62.3	53.3	48.6	74.6	69.9	27.1	60.9	79.1	55.3	60.5
노동 상황 1	총경력년수	4.3	4.2	4.5	5.4	4.9	2.9	6.3	4.1	3.7	3.9	3.0	
	고용계약 개월	2.9	2.3	4.0	2.1	2.1	2.1	-	2.5	5.9	5.5	2.3	
	1주일 노동일 (6일 이상%)	4.9 (21.8)	4.7 (14.6)	5.2 (25.0)	4.8 (20.0)	4.9 (10.1)	4.9 (24.3)	4.3 (1.7)	4.7 (17.2)	5.7 (72.2)	4.6 (12.9)	4.9 (15.4)	
	1주 노동시간 (52시간 이상)	37.6 (28.3)	36.0 (4.9)	45.0 (26.7)	37.6 (5.0)	41.2 (3.8)	36.1 (9.7)	34.1 (0.0)	36.4 (9.4)	55.2 (62.5)	40.2 (5.8)	38.2 (7.7)	
	월 평균 총액임금 (市 생활임금 이상)	210 (37.8)	168 (17.2)	167 (7.7)	240 (57.9)	219 (44.2)	172 (12.9)	143 (0.0)	156 (14.5)	324 (84.7)	198 (21.7)	194 (36.7)	

		전체 평균	여성	1인가구	건설	제조	음식 여가	가사 돌봄	청소 경비	유통	물류 운송	판매 기타
노동 상황 2	근로계약 서면수령	23.0	18.3	50.0	15.7	12.7	21.4	6.8	26.6	44.4	39.4	23.1
	임금체불	10.0	6.7	26.7	12.6	17.1	19.0	8.7	1.7	9.4	4.2	2.9
	보수 지연 수령	25.4	19.2	40.4	39.3	36.7	35.0	0.0	23.4	8.3	20.3	18.7
	최임 이하 책정	12.9	15.2	26.7	17.1	10.1	19.4	6.8	7.8	4.2	13.0	15.4
	별도 소개비 요구	10.2	8.5	0.0	21.4	10.1	13.6	6.8	6.3	4.2	4.3	3.3
사회 안전 망	국민연금 미가입	18.9	13.4	75.0	75.0	84.4	79.6	98.3	75.0	79.2	76.1	87.9
	건강보험 미가입 (미납유예 등)	45.9 (6.5)	47.9 (3.4)	37.5 (31.3)	3.14 (14.3)	44.3 (2.5)	35.0 (3.9)	86.4 (1.7)	39.1 (4.7)	56.9 (5.6)	52.1 (7.0)	47.3 (5.5)
	고용보험 미가입	82.0	88.9	86.0	78.6	79.7	83.5	94.9	68.7	83.3	85.7	84.6
	산재보험 미가입	23.9	17.7	100.0	22.8	19.4	6.8	32.8	54.2	14.3	17.6	14.5
	민간보험(개인) 가입	76.1	77.1	62.9	25.0	82.3	71.8	94.9	71.9	90.3	71.8	79.1

- 2021년 A지역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터뷰 조사 내용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일용직 10명 중 4명(37.8%)은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했고, 기간제 비율도 20.1%였음. 반면에 일용직 노동자 중 일부는 일회적으로 시작한 일자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물게 되기도 함. 더불어 일하는 과정에서 산재처리나 유급병가(혹은 상병수당)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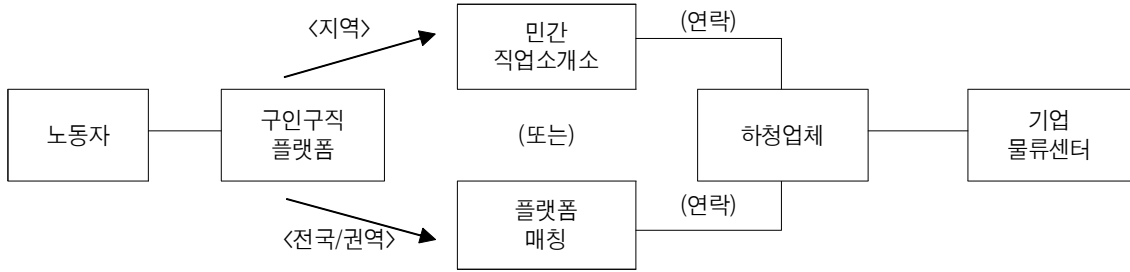
(제가) 회사도 다녔고, 사업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인력사무소 한번 나가볼까. 그리고 나간 게 여기 온 거예요. 2년 반 전에 일 하다 보니까 1주일만 한다는 게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잠깐 할까.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게, 계속 하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A 지역 사회 면접 참여자)

지게차에 치이는 정도 아니면 웬만해서 (산재처리)안 해주죠. 여름에 30도 넘게 올라가는데 카트 끌고 다니고 이러면 덥잖아요. 그래서 무슨 피부병이 생겼어요. (병원)피부과를 한두 달을 다녔는데, 항생제 이런 것도 먹고 그랬죠.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니깐 그런 걸로 그러냐고,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다. 저런 거로 병원까지 다닌다고 얘기하죠(A 지역 사회 면접 참여자)

이게 일당이다 보니 하루 하루 받는 거잖아요. (일)안 나가면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센터 같은 곳은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아파도 나가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회사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하는 일을 하다가 급해지면 가거나 그럴 거 같아요. (A 지역 사회 면접 참여자)

- 건설업 이외에도 최근 제조업 및 서비스(가사서비스, 물류운송)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들 내부에서는 내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음, 때문에 이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다른 일자리(일감)를 찾는 현상도 확인됨. 반면 최근 ICT 기술발전과 맞물려 일용직 시장에도 플랫폼경제가 침투하고 있는 상황임. 지역 사회 내에서 전통적인 인력중개 사무소나 협회 등만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가 매개되고 있음.

[그림 1] 일용직 노동자의 구직 경로 - 물류센터 사례



III. 일용직 노동시장 정책 과제

1. 일용직 노동생활 세계

- 첫째, 일용직 노동자의 국내외 여행 경험 비율은 27.4%(여성 35.1%)로 시간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여가 활동 어려움(89%)이 확인됨. 일용직 노동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시설이 아닌 비주거시설 형태의 거주(상가, 공장, 고시원, 찜질방) 비율이 2.7%나 되었고, 조사대상 표본 중 1인 단독가구 노동자는 모두 비주거시설 거주였음.
- 둘째, 코로나19 시기 일감을 구하지 못한 자가 10명 중 4.5명(44.7%)이나 되었고, 소득 감소자는 3분의 2(66.7%)였으며, 임금 체불 경험(21.5%)도 적지 않았음. 신용조건 미달 등으로 생계유지 목적 대출자도 10명 중 1명(13.5%)이었음. 코로나19의 타격은 일용직 노동자의 '삶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켰다고 봐야 함.
- 셋째,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수행하기 전 건강 상태 확인 비율은 절반가량(47.3%)이었고, 산재 신청 유경험 비율은 11.9%(심사 중, 기각 제외)로 적은 상황임. 일터의 안전 비품 관리부족으로 위험성을 인식하는 비율(20.3%)도 적지 않았음. 한편 일터에서의 괴롭힘 경험(11.9%)과 함께 정신건강(우울증상 중간 이상 29.3%)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

[표 5] 일용직 노동실태 주요 특징 - 일터 안전, 코로나19, 삶의 모습(단위: %, 회)

		전체 평균	여성	1인 가구	건설	제조	음식 여가	가사 돌봄	청소 경비	유통	물류 운송	판매 기타
일터 문제	괴롭힘 경험	11.9	12.8	12.5	20.0	10.1	12.6	3.4	2.8	15.5	6.5	7.0
	우울증상(중간 이상)	29.3	21.5	15.4	5.4	25.7	17.6	50.9	14.1	31.9	19.7	15.4
	건강상태 미확인(일 시작 전)	52.7	53.7	50.0	49.3	51.9	57.3	35.6	62.5	63.9	40.8	58.2
	산재 신청 경험(심사)	11.9	5.4	0.0	8.2	6.7	18.2	0.0	0.0	28.1	0.0	25.0
	안전 비품 부족 위험성	20.3	11.9	18.8	38.6	27.8	14.6	1.7	15.6	19.4	22.5	6.6

		전체 평균	여성	1인 가구	건설	제조	음식 여가	가사 돌봄	청소 경비	유통	물류 운송	판매 기타
코로나 19 상황	생계유지 목적 대출	13.5	9.5	46.7	15.7	12.7	13.6	6.8	10.9	12.5	24.6	9.9
	공과금 등 연체 경험	13.9	10.7	60.0	12.9	16.5	22.3	1.7	10.9	9.7	29.9	5.5
	일감 구하지 못한 경험	44.7	46.2	33.3	49.3	43.0	54.4	50.8	45.3	18.1	46.3	44.0
	임금 미지급·체불 경험	21.5	21.2	33.3	28.6	25.3	33.0	8.5	17.2	6.9	16.9	20.9
	소득 감소 경험	66.7	70.6	75.0	69.3	67.1	70.9	91.5	64.1	26.4	71.6	71.4
삶의 풍경	국내외 여행경험	27.4	35.1	0.0	23.6	20.3	32.0	49.2	18.8	16.7	12.7	46.2
	여가활동 어려움(시간비용)	89.0	86.9	93.1	91.4	89.9	88.3	94.9	82.8	98.6	78.9	85.7
	비주거시설 거주 (*상가/공장/고시원/현장)	2.7	1.5	100	0.7	0.0	2.9	2.7	0.0	2.8	14.1	2.2

2. 일용직 노동환경 개선 과제

- 2021년 설문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주로 소득과 고용불안 등을 꼽고 있었음. 첫째, 불안정한 일자리(29.5%),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26.3%), 일자리 부족(16.4%)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음.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8.6%)이나 미래의 불투명(6.5%), 휴일휴가 등 여가시간 부족(4%) 의견도 확인됨(표 6).

[표 6] 일용직 노동자의 생활세계 어려운 점(1순위, 단위:%)

노동문제 개선	전체	건설	제조	음식 여가	가사 돌봄	청소 경비	유통	물류 운송	판매 기타
1) 낮은 소득 수준(경제적 빈곤)	26.3	26.4	27.8	25.2	20.3	28.1	18.1	35.7	27.5
2) 고용불안정	29.5	27.9	29.1	35.0	27.1	28.1	34.7	25.7	27.5
3) 일감이나 일자리 부족	16.4	20.0	12.7	22.3	16.9	25.0	6.9	10.0	13.2
4) 위험한 일(또는 건강에 좋지 않아서)	4.9	2.1	7.6	4.9	13.6	1.6	2.8	4.3	5.5
5) 노동환경 열악함(더럽고 지저분해서)	8.6	11.4	10.1	4.9	3.4	6.3	13.9	7.1	8.8
6) 미래(노후) 불안정	6.5	7.9	2.5	1.0	10.2	4.7	19.4	4.3	4.4
7) 휴가/휴일 등 여가시간 부족	4.0	2.7	2.5	1.9	5.1	1.6	4.2	7.1	7.7
8) 부당대우 및 노동법 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도움받지 못함	0.3	0.0	0.0	0.0	1.7	0.0	0.0	1.4	0.0
9) 교육훈련 부족(공간, 비용부담, 내용 등)	0.1	0.0	0.0	1.0	0.0	0.0	0.0	0.0	0.0
10) 타 직종 이직 의향 있으나, 기회/정보 부족	3.5	1.4	7.6	3.9	1.7	4.7	0.0	4.3	5.5

[표 7]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복지 개선 필요도 의견(단위: 점수, 0점~100점)

노동복지 개선(7개)	전체	여성	1인 단독 가구	거주 일터 동일
1) 저임금, 비정규직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우수 사업장 인력 매칭 지원, 작업환경 개선, 사회보험 지원 등)	81.0	81.7	66.1	81.2
2)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 지원 정책	80.5	80.2	68.3	81.2
3) 경력단절 예방 및 구직 상담	79.6	80.9	65.0	79.7
4)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지급의무 부여(적정임금제 도입)	77.8	76.8	65.0	77.7
5) 노동자 인권보호 및 휴식보장 시스템 및 규칙 신설, 기업과 MOU	77.3	76.8	68.3	76.8
6) 괴롭힘·갑질·성희롱 및 무사고 조례 제·개정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마련	77.3	77.7	63.3	77.3
7) 취약층 노동자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환 사업 지원	76.4	77.9	58.3	76.2

○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복지 개선 의견은 주로 직접적인 지원정책 관련된 사항들이 많았음. 일용직 노동자 요구는 △저임금·비정규직의 좋은 일터 지원-인력 매칭, 작업환경, 사회보험 지원 등(81점),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지원 정책(80.5점), △경력단절 예방 및 구직상담(79.6점),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 삭감 없고,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77.8 점), △노동자 인권보호 및 휴식보장 시스템·기업MOU(77.3점), △괴롭힘·갑질·성희롱 등 제도개선과 사업(77.3점), △취약층 노동자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환 지원(76.4점) 순이었음([표 7]).

○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시장 개선 의견은 △사회보험 지원(81.8점), △거주 인프라 지원(77.1 점), △안전한 현장 교육 및 경력제도 마련(76.4점), △사업장 안전관리제도 및 취약사업장 지원제도(75.7점), △교육훈련 및 교육비 지원사업(75.6점),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 치료 지원 사업(69.9점),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69.9점) 순이었음([표 8]).

[표 8]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시장 개선 필요도 의견(단위: 점수, 0점~100점)

노동시장 개선(7개)	전체	여성	1인 단독 가구	거주 일터 동일
1) 4대 보험 지원 사업	81.8	81.0	80.2	80.2
2) 건강진단 지원 사업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69.9	71.2	56.7	70.0
3) 교육훈련 및 교육비 지원 사업	75.6	75.9	78.3	75.7
4) 거주 인프라 지원	77.1	78.1	78.3	77.5
5) 안전한 현장 교육제도 및 경력/수습제도 마련	76.4	76.3	73.3	76.4
6) 사업장관리 위한 안전관리제도 및 취약사업장 지원제도 마련	75.7	74.9	75.0	75.2
7)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치유 힐링 프로그램	69.9	71.2	56.7	70.0

IV. 맺음말

- 한국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전통적인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문제로 지적되었음. 일용직 노동자가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은 더딘 상황이었음. 일용직처럼 노동시장 내 취약집단(vulnerable work)은 저임금 및 고용 불안정, 일터 위험 이외에도 제도의 보호(교육훈련 배제, 이해대변 부족)가 미흡한 것이 지적되고 있음. 노동시장 내 일용직 노동자 규모(108만명)가 4% 남짓이나,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호가 절실함.
- 지난 10여년 사이 일용직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변화(플랫폼 이용)도 확인되며, 전통적 일자리의 감소와 함께 비경제활동이나 실업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함. 결국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확대와 함께 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확대·강화(고용보험·실업급여 보장, 국민·건강·산재보험 사각지대 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아울러 건강 및 돌봄, 주거복지 정책 등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별첨자료]).⁴⁾
-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는 곳(직장, 사업장)이 바뀌지 않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하는 비율이 59.8%(여성 62.3%)나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이는 사실상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일용직 채용(계약)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이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법 등 ‘권리의 박탈’을 겪게 됨. 특히 최근 산재사망 사고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안전의 취약성은 의도된 결과일 수도 있음.

일용직 노동자 노동조건 및 환경 개선 과제들	
노동시장 영역	비노동시장 영역
*저소득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보험료 지원 및 교육훈련비 지원 *산업안전 및 일터의 작업환경 지원 개선 - 안전화 지급, 작업복 세탁 바우처 지원 *일용직 노동권의 향상과 모니터링 사업 - 법제도 준수(근로계약, 최임, 부당노동 등)	* 저소득 일용직 노동자 주거비 지원 * 저소득 일용직 노동자 교통비 지원 * 저소득 노동자 건강, 유급병가 지원 * 저소득 노동자 금융·생활문화 지원 ⇨ 「근로복지기본법」각 조항 사업 추진

- 결국 중앙정부의 일용직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도 노동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및 소득 지원사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내 좋은

4) 2021년 설문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식료품 31.2%, 월세관리비(16.7%), 수도광열냉난방비(10.1%), 자녀교육비(7.4%), 민간보험료(7.1%), 교육훈련(5.6%), 부채상환/이자(5.3%) 등의 지원 항목 우선순위가 확인됨.

일자리를 위해 소득과 고용안전망 지원(저소득 일용직 노동자 사회보험 지원) 및 작업장/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지원(상병수당, 건강 심리 사업 등)이 정책으로 제시될 수 있음.

- 끝으로, 노동시장 내 종사상 지위의 한 형태로서 비정규직인 ‘일용직’이라는 단선적 고용형태 이외의 다양한 업종과 젠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일용직 노동자 중 경제활동이나 가구 성격(단독, 외벌이, 외톨이 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짐. 남성 중심의 건설·제조·물류운송 이외에 음식숙박 및 가사, 유통 등 일용직의 직종별 노동시장 특성이나 집단 상황이 고려된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임([별첨자료]).

[별첨자료 1] 일용직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 업종·직종

		건설	제조	음식여가	가사돌봄	청소경비	유통	물류운송	판매기타	
활동 경력	일용직 이전 종사상지위	정규직 35.7% 기간제 15% 개인사업자 11.4%	정규직 41.8% 기간제 25.3% 개인사업자 8.9%	정규직 29.1% 기간제 28.2% 기간제 14.6%	정규직 61% 개인사업자 16.9% 기간제 8.5%	정규직 28.1% 기간제 21.9% 파견·용역 14.1%	정규직 38.9% 기간제 18.1% 특수형태노 동자 16.7%	정규직 33.8% 기간제 16.9% 처음부터 계속 일용직 12.7%	정규직 41.8% 기간제 24.2% 개인사업자 7.7%	
	경력년수(년)	5.4	4.9	2.9	6.3	4.1	3.7	3.9	3	
	계약기간(개월)	2.1	2.1	2		2.5	5.9	5.5	2.3	
	1주 노동일수(일)	4.8	4.9	4.9	4.3	4.7	5.7	4.6	4.9	
	1주 노동시간	37.6	41.2	36.1	34.1	36.4	55.2	40.2	38.6	
	월평균임금(만원)	240	219	172	143	156	324	198	194	
작업장 안전망	작업장 안전 문제	일 시작 전 건강상태 미확인	49.3%	51.9%	57.3%	35.6%	62.5%	63.9%	40.8%	58.2%
		부상당한 경험	35%	19%	10.7%	16.9%	14.1%	44.4%	18.3%	4.4%
		산업재해 미신청	87.8%	93.3%	81.8%	100%	100%	59.4%	84.6%	50%
		안전관리 안함+부족	41.5%	35.4%	21.4%	1.7%	18.7%	43%	25.3%	6.6%
	사회 안전망 미가입	국민연금	75%	84.8%	79.6%	98.3%	75%	79.2%	76.1%	87.9%
		건강보험	31.4%	44.3%	35%	86.4%	39.1%	56.9%	52.1%	47.3%
		고용보험	78.6%	79.7%	83.5%	94.9%	68.8%	83.3%	85.7%	84.6%
계약과 위험	근로 계약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84.3%	87.3%	78.6%	93.2%	73.4%	55.6%	60.6%	76.9%
		별도 소개비 요구	21.4%	10.1%	13.6%	6.8%	6.3%	4.2%	4.3%	3.3%
		임금체불	17.1%	19%	8.7%	1.7%	9.4%	4.2%	2.9%	8.8%
		보수 지급 지연	39.3%	36.7%	35%	0%	23.4%	8.3%	20.3%	18.7%
		최저임금 미준수	17.1%	10.1%	19.4%	6.8%	7.8%	4.2%	13%	15.4%
	괴롭힘 경험	20%	10.1%	12.6%	3.4%	6.3%	2.8%	15.5%	14.3%	
	심리상태 우울	25.7%	17.9%	15.7%	50.9%	14.1%	31.9%	19.7%	15.4%	
	코로나19 피고용소득 피해 경험	80.7%	77.2%	75.7%	96.6%	70.3%	30.6%	78.9%	75.8%	
노동 정책	정부지원 필요항목 1순위	식료품 27.9% 월세/관리 비 14.3% 냉난방비 11.4%	식료품 31.6% 월세/관리 비 19% 냉난방비 16.5%	식료품 22.3% 월세/관리 비 17.5% 냉난방비 11.7%	식료품 71.2% 월세/관리 비 8.5% 통신/인터 넷 6.8%	식료품 31.3% 월세/관리 비 17.2% 냉난방비 10.9%	식료품 30.6% 민간보험료 22.2% 월세/관리 비 18.1%	월세/관리 비 32.4% 식료품 22.1% 교육훈련 11.8%	식료품 27.5% 자녀 교육 15.4% 냉난방비 12.1%	
	일 하면서 힘든 점 1순위	고용불안정 27.9% 낮은 소득	고용불안정 29.1% 낮은 소득	고용불안정 35% 낮은 소득	고용불안정 27.1% 낮은 소득	고용불안정 28.1% 낮은 소득	고용불안정 34.7% 미래(노후)	낮은 소득 수준 35.7%	낮은 소득 수준 27.5%	

	건설	제조	음식여가	가사돌봄	청소경비	유통	물류운송	판매기타
	수준 26.4%	수준 27.8%	수준 25.2%	수준 20.3%	수준 28.1%	불안정 19.4%	고용불안정 25.7%	고용불안정 27.5%
노동복지 정책 필요도	적정임금제 도입 79.5점 괴롭힘·갑 질·성희롱 및 무사고 조례 제·개정 및 가이드라인 , 매뉴얼 마련 78.6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 83점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 지원 정책 81.1점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 지원 정책 78.6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 78.4점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 지원 정책 91.1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 90.3점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 지원 정책 79.3점 경력단절 예방 및 구직 상담 78.1점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 지원 정책 88.5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 86.5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78.7점 취약층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환 사업 지원 76.9점	경력단절 예방 및 구직 상담 83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 80.8점
노동시장 개선정책 필요도	건강진단 지원 사업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80점 4대 보험 지원 사업 79.5점	4대 보험 지원 사업 83점 건강진단 지원 사업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80.8점	4대 보험 지원 사업 76.5점 건강진단 지원 사업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75.5점	4대 보험 지원 사업 94.1점 건강진단 지원 사업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89.4점	건강진단 지원 사업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76.6점	4대 보험 지원 사업 88.9점 건강진단 지원 사업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84.4점	4대 보험 지원 사업 80.2점 건강진단 지원 사업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79.9점	4대 보험 지원 사업 81.3점 교육훈련 및 교육비 지원 사업 79.1점

[별첨자료 2] 일용직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 가구형태별

		단독가구	장년외벌이	중년외벌이	사회적외톨이	
일용직 활동 경력	일용직 이전 종사상 지위	기간제(임시직, 계약직) 25% 프리랜서 25% 정규직/시간제 12.5%	정규직 43.1% 기간제(임시직, 계약직) 12.1% 개인사업자 10.3%	정규직 24.2% 기간제(임시직, 계약직) 18.2% 처음부터 계속 일용직 18.2%	정규직 30.2% 기간제(임시직, 계약직) 20.9% 개인사업자 9.3%	
	경력년수(년)	4.5	5	4.3	3	
	고용계약기간(개월)	4	3	4.4	3	
	1주 노동일수(일)	5.2	4.7	4.8	5	
	1주 노동시간(시간)	45	39	41.1	39.3	
	월평균임금(만원)	167	212	191	208	
작업장 안전망	작업장 안전 문제	일 시작 전 건강상태 미확인	50%	48.3%	48.5%	53.5%
		일하면서 부상당한 경험	18.7%	39.7%	15.2%	16.3%
		산업재해 미신청	100%	91.3%	80%	71.4%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	18.8%	32.8%	24.2%	16.3%
	사회 안전망	국민연금 미가입	75%	81%	72.7%	74.4%
		건강보험 미가입	37.5%	43.1%	51.5%	23.3%
고용보험 미가입		87.5%	82.8%	87.9%	69.8%	
계약과 위험	근로 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50%	79.3%	57.6%	60.5%
		별도 소개비 요구	0%	13.8%	12.5%	4.8%
		임금체불	26.7%	24.1%	12.5%	11.9%
		보수 지급 지연	40%	31%	18.8%	33.3%
		최저임금 미준수	26.7%	13.8%	21.9%	19%
	직장 내 괴롭힘 피해	12.5%	19%	21.2%	11.6%	
	심리상태 우울(매우우울+우울)	30.8%	29.3%	25%	21.4%	
	코로나19 피해 경험 (소득감소, 일감부족으로 인한 실업, 공과금 미납, 임금체불)	87.5%	81%	75.8%	65.1%	
노동 정책	정부지원 필요항목 (1순위)	월세/관리비 53.3% 식료품 20% 부채상환/이자 13.3%	식료품 29.3% 월세/관리비 19% 부채상환/이자 8.6%	월세/관리비 36.4% 식료품 21.2% 교육훈련 15.2%	식료품 30.2% 월세/관리비 16.3% 냉난방비 16.3%	
	일 하면서 힘든 점 (1순위)	낮은 소득 수준 66.7% 고용불안정 13.3%	고용불안정 29.3% 낮은 소득 수준 27.6%	낮은 소득 수준 42.4% 고용불안정 36.4%	낮은 소득 수준 27.9% 고용불안정 27.9%	
	노동복지 정책 필요도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 지원 정책 68.3점 노동자 인권보호 및 휴식보장 시스템 및 규칙 신설 및 기업과 MOU 68.3점	저임금, 비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 83.2점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 지원 정책 81점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지급의무 부여 75.8점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저임금, 비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 79.7점 취약노동자 소득안정 및 휴가 지원 정책 78.6점	

		단독가구	장년외벌이	중년외벌이	사회적외톨이
				및 휴가 지원 정책 74.2점	
	노동시장 개선정책 필요도	건강진단 지원 사업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78.3점 교육훈련 및 교육비 지원 사업 78.3점	4대 보험 지원 사업 81.5점 건강진단 지원 사업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79.3점	4대 보험 지원 사업 80.6점 건강진단 지원 사업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79점	4대 보험 지원 사업 81.4점 건강진단 지원 사업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78.6점

[별첨자료 3] 기존 일용직 노동문제 정책 사례 - 중앙정부 및 광역

시행시기	정책 명	지역	정책 대상	주요 내용
2012년	동절기 건설 일용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전국	건설 일용직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화된 기초 안전 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2만 명, 수당제공) ○ 고용센터에는 건설 특화 상담창구 개설, 건설일용노동자를 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나 재정지원 일자리 등과 매칭 ○ 건설일용노동자의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이 창업이나 전직을 할 때 '특별퇴직공제금'을 지급 ○ 새벽 인력시장 간이 쉼터 8곳으로 증설(현재 2곳) 및 건설일용근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자금 대부(퇴직공제금 담보) ○ 불법 외국인 노동자 막기 위해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엄격히 운영
2013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전국	건설 일용직 노동자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 물질, 분진, 중금속, 소음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 검진비용 지원
2013년	취약계층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지원	전국	건설 일용직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일용노동자가 건설업 기초교육을 받을 경우 그에 드는 교육비용을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원
2017년	인력시장 간이쉼터	서울	건설 일용직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벽인력시장이 자생적으로 조성된 구직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휴한기 쉼터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 천막에 보온시설과 음료를 갖춘 형태로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운영 - 인근 건물의 화장실도 상시적으로 이용
2019년	유급병가지원	서울	일용직 등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노동자 포함하여 유급휴가가 없는 취약계층에 유급병가를 지원
2020년	건설 일자리 혁신대책	서울	건설 일용직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다음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노동자의 연금 건강보험료 노동자 부담분 7.8% 전액 지원 - 5일 계속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 장기고용 유도를 위해 주급제 개선 사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 건에 대하여 포괄임금 금지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